

“여수 밤바다~♪” 관광객 열기 ‘후끈’

8월 첫 주 18만명 방문 ... ‘국제버스킹 페스티벌’ 인기 여수 청년물 ‘꿈뜨락몰’서 이색 맥주축제 개최 눈길도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도시인 여수시가 다양한 축제 등 8월 첫 주말 풍성한 즐길거리로 휴가철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당기고 있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 여수 밤바다 일원에서 펼쳐진 ‘2018 국제버스킹 페스티벌’과 명품 섬관광지인 거문도에서 열린 ‘제18회 거문도·백도 은빛바다 체험행사’ 등에 여수를 찾은 관광객 수는 18만 7000여명에 달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국제버스킹 페스티벌이 열린 여수 종포해양공원 일대는 전세계 버스커들의 열정적인 공연을 즐기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여수시는 전 세계 25개 팀 83명의 아티스트가 참가한 국제버스킹 페스티벌에 관람인원만 6만여명이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 명성에 걸맞게 부활과 K2, 에메랄드 케슬 등 국내 대표 밴드와 미국·러시아 등 15개팀 47명의 해외 버스커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연팀이 9팀이 더 늘어나 관광객·시민들에게 더욱 큰 즐거움을 안길 수 있었다.

국제버스킹의 주무대는 종포해양공원이었으며 이순신광장 등 4곳에 보조무대를 펼쳤다. 또 주무대와 보조 무대가 이어진 공간에 ‘듀얼 스테이지’를 마련해 페스티벌 참여 아티스트 간 합동공연도 선보였다.

수준 높은 버스킹 공연과 함께 거리퍼레이드

이드가 이어졌으며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 구입·체험장인 로맨틱 아트마켓과 맥주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낭만버어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천혜의 해양경관을 간직한 신비의 섬 거문도 일원에서는 제18회 거문도·백도 은빛바다 체험행사가 열렸다.

거문도 은빛바다 체험행사는 뛰어난 경관과 풍부한 어족자원 등 거문도·백도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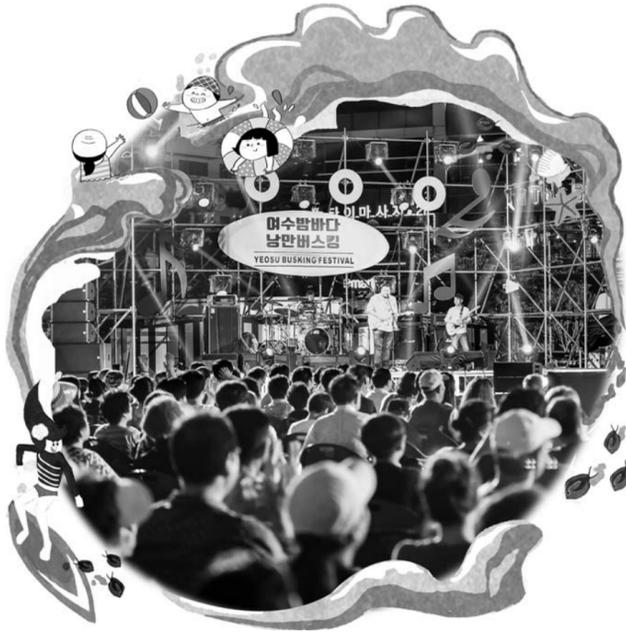
은빛바다 축제에 흥취 취한 2000여명의 관광객들이 올해 체험행사의 가장 큰 볼거리로 손 꼽은 것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거문도벚노래’다. 거문도벚노래는 옛시절 거문도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며 불렀던 노동요로 체험행사마다 재연공연이 이어지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육상·해상 모두를 한 무대로 활용해 거문도벚노래보존회와 시립국악단, 우도풍물단이 합동 공연을 펼쳐 장관을 연출했다.

도심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됐다. 여수 청년물인 ‘꿈뜨락몰’이 3일부터 4일까지 여름밤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맥주파티를 마련했다.

‘꿈뜨락몰’은 여수지역 청년상인들이 꿈을 키우는 청년몰로 여수 중앙시장 2층에 지난달 12일 문을 연 지역 대표 청년 프로그램이다. 지역 청년들은 방문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시원한 맥주와 세계 각국의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와 ‘맥물리에(맥주 브랜드 맞추기)’ 대회 등도 마련해 파티의 재미를 더했다.

고제의 여수시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은



▲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국제버스킹 페스티벌이 열린 여수 종포해양공원 일대는 페스티벌을 즐기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여수시 제공)

“폭염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족, 친지와 함께 축제를 즐기며 여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축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 chkim@kwangju.co.kr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인증사업 활발

수박 등 160개 품목 시행 활용업체 현장점검 등 관리

고창군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인증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역 농·수산인들이 수박과 멜론, 블루베리, 복분자 등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인증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45개 업체 160개 품목이 브랜드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군은 브랜드 활용업체의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군은 로고를 사용한 후 판매소득을 조

사한 결과 지역 특산물인 수박, 블루베리, 복분자 등 로고를 사용한 후 해당 업체들의 판매량이 약 15%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사업 대상 기준은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특산물을 판매·유통하거나 지역 생산물을 주원료로 70%이상 활용하고 제조하는 가공품을 생산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인기관에서 친환경인증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을 취득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는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브랜드인증 신청서에 1차 산업 또는 2차 산업의 경우 필요한 첨부 서류가 기재돼 있다.

/고창=박정진 기자 phj@kwangju.co.kr

군산 근대미술관 ‘산광수색’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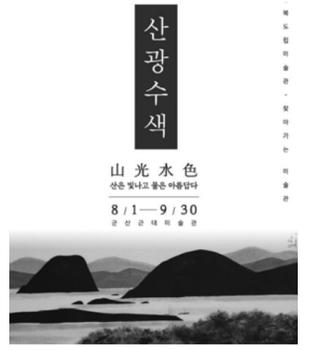
9월 30일까지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근대미술관(옛 18은행 군산지점)에서 전북도립미술관 초대전 ‘산광수색(山光水色)’(포스터)을 개최한다.

6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따르면 도립미술관의 도움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산과 물을 주제로 한 작품들로 구성된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풍경을 관람객들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전시에서는 원숙한 윤필과 속도감 있는 선으로 자연을 바라본 김문철 화백의 ‘동구미항’, 질푸른 바다의 적막을 깨고 초록 생명이 울토고 있는 이도근 화백의 ‘독도’, 형식적인 틀과 정형화를 벗고 붓이 가는 대로 내면의 자유를 표현한 이희춘 화백의 ‘꿈·중도원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외 전북 지역의 낯익은 풍경을 담은 권영술, 이소백, 정명희 화백의 대표 작



품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도립미술관이 소장한 16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는 전통과 현대, 동서양의 기법이 적절히 가미된 한국 고유의 산수를 소개해 관람객들에게 필묵의 유희라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장흥고 건물 노후화 심각 ... 재건축 서둘러야”

안전진단 D등급 ... 잦은 보수공사로 예산 낭비 학습권 침해로 일부 학생들 타지역 유출 빈번

지역 인재의 요람으로 큰 역할을 했던 장흥고등학교가 건물이 노후화돼 시급히 개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지난 1972년에 다시 지은 장흥고등학교 건물이 너무 낡았고 관리도 허술해 학생들이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달 전남교육청이 ‘교과교실제 도입 희망학교’ 현장방문 실사점검 때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진들로부터 건부재건축안전진단 D등급으로 신속히 개축해야 한다는 진단결과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점검실사단은 ‘현 교사동 건물이 신축한 지 47년이 지나 오래됐고 표준형 편복도 구조로 안전상 학생들의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잦은 보수공사는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교과교실제 운영에 지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건물 후면이 산지형의 급경사로 이뤄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뿐 아니라 주변 건물들에 대한 무게하중이 배치로 학생들의 동선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제시했다.

장흥고등학교 건물은 지난 2015년 이후 올해까지 동파와 누수 등 17건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 이에 대한 공사비만도 8억

2000여만원에 달하는 등 예산 낭비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지역민들은 “인근 강진과 보성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는 이미 거점고로 지정돼 전면개축 과정을 거쳐 일명 대학교 캠퍼스 규모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자존심이 실추됐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올해로 67회 졸업생을 배출한 장흥고등학교는 1980년대까지 지역 목포고와 순천고, 여수고 등 4대 인문계 명문고교로 인정 받았으며 졸업생만 1만6400여명에 달하는 유서깊고 전통있는 학교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정읍시 ‘시민의 장’

이달 말까지 선정

정읍시가 ‘시민의 장’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추천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시민의 장은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열정과 노력으로 시정발전에 헌신·봉사한 시민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추천 분야는 문화장과 새마을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 애양장, 효열장, 명예 시민의장 등 총 8개 부문이다.

추천 대상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정읍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다.

추천 자격은 시 단위 각 기관장과 해당 분야의 사회단체장, 읍·면·동장, 학교장, 기업체 대표, 향우회장과 과소장이다.

추천 접수는 시청 총무과와 해당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시상은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 된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내진설계된 소형건물 지방세 감면

익산시가 안전사회 조성에 속도를 올린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소형 건축물이나 주택 등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한다.

내진 확보를 통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은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신축 건물 또는 건축 당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주택이다.

소형 건축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가 건축(신축

및 증축 등)의 경우 50%, 대수선의 경우는 전액 감면된다.

반면 해당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재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진보강 공사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취득 신고서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건축법상 현재 2층 미만(기둥과 보가 목구조인 경우 3층 미만), 연면적 200㎡ 미만 등 소형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상가(빌딩) 매매 - 진월동 -

- 대 지 1,132㎡
- 건물 4,739㎡(공실없음)
- 매 가 78억
- 수익률 6.8%

☎ 010-2602-7266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딱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제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오피스텔 "급매"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전망좋은, 즉시 입주
- 내부 시설 완료, 사무실전용
- 8층, 33평 - 급매 8,400만원
- 2층, 38평 - 매매 9,400만원

문의.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신안 증도면 대초리 5940㎡ 계획관리지 4600만원
-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땅 794㎡ 주택은 수리해야 함 3800만원
- 전북 순창군 북촌면 지선리 대지 433㎡ 3천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시업구 택지조성된 곳 660㎡ 9천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광산구 송산동 땅 1054㎡ 집 100㎡ 전원생활적합 3억2천
- 아파트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리모델링완료 1억7400
- 월산동 리모델링완료 땅 144㎡ 2층주택 118㎡ 1억9500만 1층대지가능

투자·매도·교환

- 광산구 삼거리 대로변점 계획관리지역 3640㎡ 6억9천
- 전북 신대인 상업지 1213㎡ 은행3억6천 감정6억7천 교환가 4억6천
- 영암 삼호읍 준공업지 땅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3천
- 나주 동강면 옥정리 영산강부근 전 3154㎡ 전원생활용 5300만원
- 월산동 양면도로점 2층 주거지 873㎡ 은행4억 매도 11억5천
- 금남로 57가역 대로점 상업지 364㎡ 16억
- 쌍춘동 소방도 땅 118㎡ 2층 상가주택적합 1억3천
- 영광 흥농읍 주거지역 5223㎡ 공사가 6700 매도 8700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1650㎡ 전원생활 등 적합 4억5천
- 함평역 건너 대로점 2층주거지 3192㎡ 다양한용도 2억6천
- 동구 수기동 대지 152㎡ 3층 상가주택 292㎡ 매도 4억천

상가건물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평 1996㎡ 병의원적합 20억
- 금남로5가 소방도 땅 213㎡ 건평 599㎡ 은행 3억 매도 6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 충장로5가 땅 109㎡ 건물 378㎡ 8000에 월 115 임대중 3억5천
- 부안군 반산면 도청리 땅 792㎡ 펜션 건평 867㎡ 은행 4억7천 매도 8억2천
- 동구 충장로5가접 수기동 대지 168㎡ 2층건물 투자에 좋음 3억8천
- 카센타적합지 농성동 대지 182㎡ 3층건물 297㎡ 현재운영중임 4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최적 65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펜션·가든 부지 매매

-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